

다성적 관점에서 본 프랑스어 속담과 '의견동사+속담' 구문의 해독*

황경자
(이화여자대학교)

1. 머리말

지시의미론적 관점에서 Kleiber(1999, 64)에 의해 “매우 특수한 유형”의 문장적 명칭으로 정의되는 속담은 그 명칭적 위상으로 인해 집단적인 판단을 나타낸다. 속담이 표현하는 술어작용 또는 판단은 다른 모든 명칭이 그런 것처럼 모든 화자에게 강요되며, 따라서 공동의 언어코드에 속하기 때문에 개인의 소관일 수가 없고 집단적 성격을 띠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속담을 정의하는 “민중의 지혜”(sagesse des nations)나 “민중의 목소리”(vox populi)나 하는 표현이 이를 잘 나타내주고 있다. 따라서 속담의 발화행위는 다음성적 성격을 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속담을 말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목소리를 통해 다른 목소리 즉 “민중의 지혜”의 목소리를 듣게 한다. 그렇다면 프랑스어에서 개인적 의견을 나타내는 ‘Je trouve que...’와 같은 표현과 속담이 결합된 구문은 어떻게 해석되어야 할까? 속담이 개인적 판단을 나타낼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하나? 의견동사가 속담과 결합될 수 있다는 것은 속담이 그 명칭적 위상으로 인해 집단적인 판단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는 사실과 상충한다고 볼 수 있는 바, 이런 경우 속담발화행위의 다성적 성격도 사라지게 된다.

우리는 이 글에서 프랑스어 속담을 근거로 하여 다성적 관점에서 속담의 속성을 규정한 다음 의견동사와 속담이 결합된 구문의 가능한 해독방식을 살펴보는 가운데, 속담이 개인적 의견으로 환원될 수 없음을 밝혀보고자 한다. (한 언어권의 속담은 좀처럼 다른 언어로 환언하지 않는다. 필자가 이 글을 쓰면서 가장 곤혹스럽게 느낀 것도 불어 속담의 번역 문제였다. 또한 계속 되풀이되는 속담을 매번 우리말로 옮기는 번거로움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불어 속담에 관한 해설을 글 말미에 일괄적으로 제시하는 형식을 취하게 되

* 이 논문은 2000년도 두뇌한국21사업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있음을 미리 밝혀 둔다.)

2. 속담의 화자/저자 구분

다성적 관점에서 볼 때 속담의 내용은 속담화자에게 고유한 것이 아니고 ‘타인’—개별적 타인이 아닌 집단적 발화자, 일반대중—에게서 나온다. Anscombe(1994, 100)가 이를 잘 지적한 바 있다. 즉 그에 의하면 “속담을 발화하는 사람은 속담의 화자이기도 하지만 속담의 저자는 아니며, 다성적 용어로 말하자면 속담의 화자(locuteur)는 속담에 결부되어 있는 원리의 발화자(énonciateur)가 아니다.” 예컨대 “Pierre qui roule n’amasse pas mousse”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 속담의 화자이기도 하지만 이 속담이 표현하는 내용의 책임자는 아닌 것이다. 속담의 발화자가 속담발화의 근원을 명시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Maingueneau(2000, 148)에 의하면 속담을 속담으로 식별하는 것은 공발화자(co-énonciateur)의 몫으로, 이를 위해서 공발화자는 자신의 기억과 속담발화의 언어적 특성에 의존한다. Grésillon과 Maingueneau(1984, 113)가 속담의 다성적 해석의 두 가지 요인으로 지적한 바 있는 언어적 요인과 언어외적 요인이 바로 그것이다. ‘언어외적 요인’이란 속담이 공발화자의 기억과 관계된다는 점 (즉 전체 언어사용자들이 알고 있는 속담목록에 들어 있다는 점) 그리고 그 의미가 구성요소들의 의미만으로는 계산될 수 없다는 점을 가리키고,¹⁾ ‘언어적 요인’이란 속담이 아무런 형태의 발화로나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특수한 언어적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가리킨다. 발화자, 대화자, 시제연동소의 총칭적 위상이나 개체가 아니라 ‘부류’를 지시하는 명사구의 사용, 통사구조의 고유적 특징 등이 속담의 형태적 표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²⁾ G. Gross(1996, 144)는

1) 속담이 사전에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은 속담이 한 언어의 공동화자들에게 알려져 있다는 점, 즉 개별적 속담화자는 집단적 속담발화자와 구별된다는 점을 입증한다. 또한 속담이 지닌 명칭적 위상은 속담의 의미가 미리 정해져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일반 문장의 경우와는 달리 구성단위들이 지니는 의미의 합성에 토대를 두는 것이 아니라 명칭적 약정에 의해 주어진다. 그리고 이 약정이란 언어공동체의 구성원들 전체에 의한 것이다.

2) 속담에서는 주로 집단적 판단, 즉 ‘민중의 지혜’를 표상하는 om이 주어로 사용되나 간혹 je 나 tu 혹은 이들의 굴절형—여러 굴절형을 포괄하기 위해 앞으로는 대문자 JE와 TU로 표기함—가 사용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의 단수형 대명사는 인칭연동소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총칭적인 가치를 지닌다.

인용문과 속담의 차이를 논하면서, 전자에 관한 한 우리가 그 저자를 알고 있는 반면 속담은 일반적 진리를 나타내는 약정적 문장임을 상기시킴으로써 속담이 화자의 창조물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속담을 암기해야 하고, 속담이 통사적 틀과 리듬, 특수한 수사법을 지니고 있는 것도 암기를 돕기 위한 장치라는 것이다.

속담의 화자가 속담의 저자/발화자가 아니라는 것은 다음과 같은 테스트를 통해 입증된다.³⁾

*Je trouve que petite pluie abat grand vent. (Anscombe 1994, 100)

?Je crois que loin des yeux, loin du coeur. (Kleiber 1999, 67)

?Je pense que qui trop embrasse mal étreint. (Kleiber 1999, 55)

?Selon moi, qui trop embrasse mal étreint. (" ")

??A mon avis, prudence est mère de sûreté. (Anscombe 1994, 101)

??Franchement, pas de nouvelles, bonnes nouvelles. (" ")

??Visiblement, qui ne risque rien, n'a rien. (" ")

이 예문들은 개인적인 의견을 나타내는 수행표현과 속담의 결합이 힘들다는 점을 보여준다. 'Je trouve que/Je crois que/Je pense que + 속담'은 화자와 의견 발화자의 동일성을 전제로 한 표현이지만 속담은 이 둘의 분리를 지향하므로, 여기서 표현상

Il est mon oncle qui mon ventre me comble.

Si tu vois la barbe de ton voisin brûler, tu peux mettre la tienne à tremper.

이 속담들에 사용된 JE나 TU는 물론 총칭적 가치를 지니나, 보편적 주어(특히 on)를 JE 내지 TU로 대체함으로써 일반적 가치를 지닌 속담발화를 인칭화하는 기능을 지닌다. 이렇게 함으로써 총칭적 발화 내에 발화상황과의 생생한 관계를 유지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시제로는 현재시제가 주로 사용되는데 이것도 연동소로서의 본래의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성과는 무관한 총칭적 현재로서 부류를 지시하는 주어 명사구와 함께 사용되어 일반적 진리를 나타낸다. 이와 같이 속담은 총칭적 좌표설정을 전제하는 발화적 등재를 특징으로 지닌다. 속담은 필연적으로 비연동적이다. 통사구조의 고어적 특징은 Greimas(1970, 311)에 의해 연구된 바 있는데, 관사의 부재, 관계대명사의 선행사 부재, 비정상적인 어순 등이 그 대표적 예다. 속담의 이런 고어적 특징은 태고적 경험으로부터 오는 "민중의 지혜"로서의 속담의 성격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다. (이상의 언어적인 특성은 속담의 화자와 속담의 저자를 분리해서 생각하도록 한다.)

- 3) '의견동사 + 속담' 구문의 용인가능성 여부와 관련해 비불어권 화자인 필자의 판단 오류를 배제하기 위해 불어권 화자인 학자들에 의해 그 용인가능성 여부가 이미 결정된 예문만을 인용하기로 한다.

의 충돌이 생기는 것이다. 발화행위부사와 속담과의 결합이 어려운 것도 마찬가지로 이유에서이다. 이들 발화의 주체인 Je는 속담에 의해 표현된 판단의 책임자가 아니다. 속담이 표현하는 일반적 진리는 속담을 사용하는 화자의 목소리와는 다른 목소리, Kleiber(1999, 58)의 표현을 빌리면 “집단적 익명의 목소리”를 지닌다. 속담을 지칭할 때 흔히 사용하는 “민중의 지혜”나 “민중의 목소리”나 하는 표현들이 이를 잘 나타내준다.

Kleiber(같은 책, 54)는 위와 같은 테스트들은 무엇보다 속담의 개념적 내용에 관계될 때만 속담 화자와 저자의 구분에 변별적인 기능을 한다고 강조한다. 속담의 화자가 ‘저자’가 아니라는 것은 속담화자가 ‘내용’의 책임자가 아님을 뜻하는 것만이 아니라, 속담의 ‘형태’, 즉 속담에 사용된 단어, 단어들의 결합, 그리고 속담에 특유한 은유성의 책임자도 아니라는 것이다. 속담을 환언하는 경우, 즉 속담의 의미를 명시하는 경우 속담적 성격이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보아 이 점을 알 수 있다. 예컨대 프랑스어 속담 “Loin des yeux, loin du coeur”나 한국어 속담 “쥐구멍에도 별들 날이 있다”를 각기 “L'éloignement de deux êtres qui s'aiment fait diminuer leur amour”나 “지금은 괴로운 처지이지만, 언젠가는 좋은 때가 올 것이다”와 같은 설명적 발화로 환언했을 때, 이 환언문은 속담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흔히 속담과 결합해서 나타나는 표현법, Norrick이 속담접사라고 부르는 “Comme on dit”에서의 comme나 dire와 같은 표현의 사용이 속담의 형태적 측면을 강조한다. Kleiber(1999, 65)에 의하면 속담의 화자가 속담형태의 책임자가 아니라는 점은 속담의 문장적 명칭(dénomination phras-tique)으로서의 위상⁴⁾에서 나온다. 발화된 속담은 명칭—즉 형태와 의미—의 안정적 결합이기 때문에 보통명사의 사용자가 그 형태의 책임자가 아닌 것처럼 속담의 화자도 그가 사용하는 속담의 형태의 책임자가 아닌 것이다.

그런데 속담화자는 속담의 저자/책임자는 아니지만 속담 사용의 저자/책임자이기도 하다. 속담화자는 속담과 속담에 결부되어 있는 원리를 발화하는 행위의 책임자이며, Anscombe(1994, 100)에 의하면 ‘여기’ 그리고 ‘지금’ 적용가능한 이 원리를 선언하는 책임을 진 사람이다. 그런 점에서 Anscombe는 속담들의 총화를 육법전서에, 속담화자를 변호사에 비교하고 있다. 법의 저자는 ‘정의’ 이지 변호사가 아니다. 변호사는 단지 그런 특수한 상황에서 특정의 법에 의거하기를 선택하는 책임을 진다. 그렇기 때문에 화자가 자신의 판단을 특수한 상황에 적용시켜 속담을 사용하

4) 기호학적인 면에서 속담은 명칭이면서 동시에 문장이라는 아주 특이한 위상을 지니고 있는데, 이에 관해서는 Kleiber(1994), Michaux(1999a), 황경자(2000)를 참조할 것.

는 다음 예문들에서는 의견동사나 발화부사와의 양립이 가능한 것이다.

Je trouve que pour une fois, à quelque chose malheur est bon.
Franchement, au vu des circonstances, pas de nouvelles, bonnes nouvelles.
Visiblement, de nos jours, qui ne risque rien, n'a rien.
A mon avis, dans ton cas, prudence est mère de sûreté.
(Anscombe 1994, 101)
Je crois que, avec Fred, loin des yeux, loin du coeur.
Je pense que, dans cette affaire, qui trop embrasse mal étreint.
Selon moi, étant donné la situation, prudence est mère de sûreté.
(Kleiber 1999, 56)

Anscombe는 속담화자를 속담의 국지적 적용의 책임자로만 간주하나, Michaux(1997, 396)에 의하면 속담화자는 또한 속담의 일반적 적용의 책임자이기도 하다. 즉 속담화자는 속담, 다시 말하면 속담에 결부되어 있는 일반적 원리를 국지적으로(즉 여기 그리고 지금) 또는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책임을 진다. 이 문제는 속담 해독과 관련된 제4장에서 보다 자세히 다루게 될 것이다. 요컨대 속담화자는 속담 적용의 책임자이기는 하지만 속담의 저자/책임자는 아닌 것이다.

3. 속담 저자의 집단적 성격

‘속담화자’와 구별되는 ‘속담저자’는 개인이 아니다. 이는 화자가 아닌 다른 주체를 의견동사의 주어로 설정하는 테스트를 통해 알 수 있다.

?Paul trouve que qui va à la chasse perd sa place.
?Paul croit que qui trop embrasse mal étreint.
?Paul pense que qui trop embrasse mal étreint.
(Kleiber 1999, 60)

이러한 예는 속담이 집단적 의식에 속하는, ‘이미 획득된’ 판단임을 입증한다. Anscombe(1994, 100)의 표현을 빌리자면 속담의 발화자/저자는 “집단적 언어의식”(conscience linguistique collective)과 같은 것이다. Charaudeau에 의해 “전체를 포함하는 집단적 제삼자”⁵⁾를 가리킨다고 규정된 on이 사용된 ‘Comme on dit’와 같은

속담접사와의 양립가능성은 속담이 비개인적 판단임을 입증한다.⁶⁾ 모든 속담은 이 속담접사에 의해 도입될 수 있다.

Comme on dit, il n'est pire eau que l'eau qui dort.
Comme on dit, ce qu'on apprend au berceau dure jusqu'au tombeau.

그렇다면 다음 예문은 어떠한가?

Comme (le) dit ma concierge, les mouches se reposent toujours sur les chevaux maigres.
Comme (le) dit ma grand-mère, vieux mari et jeune femme, des cornes en campagne.
(같은 책, 59)

여기서는 *ma concierge*나 *ma grand-mère*가 사용됨으로써 일견 개인이 속담의 저자/책임자인 것 같이 보인다. 그러나 사실 이들은 속담의 애용자, Kleiber(p.59)의 표현을 빌리자면 “속담의 상습적인 사용자”(habitué du proverbe)에 불과하다.⁷⁾ 이런 예를 근거로 Kleiber는 ‘Comme on dit’라는 기준의 성격을 재정립한다. 이 표현법은 속담에 의해 표현된 판단의 집단적 성격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전혀 아니고 화자들에 의한 속담의 공동사용의 발현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이런 ‘말하기’ 습관성에 결합된 *on*의 집단적 불확정성(*indéfinitude collective*)에 의해 속담의 발화행위는 이미 하나의 습관이기에 더 이상 개인의 사실이 아니라는 결론이 간접적으로 내려지는 것이다. Grésillon과 Maingueneau(1984, 113)가 속담의 발화행위를 “반향-발화행위”(énonciation-écho)라고 한 것이나 Berrendonner(1981, 207)가 일종의 “앵무새증상”(psittacisme)으로 보는 것도 발화자가 특정 속담을 그 속담의 무수한 선행발화

5) Charaudeau (1992, 130)의 말을 직접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on renvoie à un tiers collectif qui englobe une totalité.”

6) 이 집단 속에는 화자도 포함된다. 그래서 Grésillon과 Maingueneau(1984, 112)는 속담에 대한 다성적 해석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속담의 화자는 또한 속담의 발화자이다. 즉 속담을 개인적으로 책임진다. 그러나 다른 발화자 즉 속담 진리의 진정한 보증인인 “on”의 배후에 숨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런 점이 속담의 다성적 성격의 특수한 면이라고 할 수 있다.

7) 이 표현법에 대해 Gouvard(1966, 50)는 해석을 달리한다. 즉 여기서 *ma concierge*나 *ma grand-mère*는 개인이기는 하지만 이들의 원형적 표상 속에는 지혜라는 자질이 들어 있기 때문에 “민중의 지혜”(sagesse des nations)를 전달하는 속담의 발화자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행위의 모방, 반향, 반복으로 제시하기 때문이다. 적합성 이론에서 속담을 반향발화(énoncé échoïque)의 일종으로 보는 것도 이와 맥을 같이한다.

4. ‘Je trouve que + 속담’ 구문 해독

앞에서 우리는 속담의 화자는 속담의 저자가 아니고, 즉 (다성적인 용어로 말해) 속담에 결부되어 있는 원리의 발화자가 아니고, 속담의 발화자는 집단적 언어의식과 같은 무엇이라는 점, 따라서 속담은 집단적 판단을 나타낸다는 점을 보았다.

그렇다면 개인적 판단을 나타내는 ‘Je trouve que’와 같은 수행적 표현과 속담이 결합되어 나타나는 경우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그런 구문은 어떻게 해독되어야 할 것인가? 우리는 이를 Michaux의 구분대로 ‘메타언어적 해독’과 ‘속담내용에 관한 해독’의 두 층위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4.1. 메타언어적 해독

속담의 메타언어적 해독은 ‘응용적’ 해독으로, 여기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그 하나는 Anscombe가 지적한 바 있듯이 속담에 결부된 원리를 화자가 특수한 상황에 적용하는 해독법으로, Michaux(1997, 396)는 이러한 개별적인 적용의 경우에 대해 “국지적 메타언어적 해독”(lecture métalinguistique locale)이라는 명칭을 붙이기도 한다. 또 하나는 Michaux(같은 곳)가 “종속된 속담의 일반적인 유효성에 관한 화자의 의견을 대상으로 하는” 따라서 “이 속담에 잠재해 있는 일반원리에 의해 입증된 상황들의 총체에 속담의 유효성을 투사하는” 해독법이다. 그는 이 후자를 “일반적 메타언어적 해독”(lecture métalinguistique générale)이라 부른다. 이에 대한 각각의 예는 다음과 같다.

(1) Je trouve que, au vu des circonstances, pas de nouvelles, bonnes nouvelles. (Anscombe 1994, 101)

(2) Je trouve que vouloir, c'est pouvoir. (Michaux 1997, 397)

(1)은 특수한 상황에 속담의 원리가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화자의 판단을 나타내고, (2)는 인생에서 문제의 속담에 해당하는 토포스가 일반적으로 유효하다고

(즉 모든 상황에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화자의 판단을 나타낸다.

이 두 가지 유형의 메타언어적 해독은 속담 원리의 적용에 관련되는 것으로, 이런 경우 화자와 발화자 사이에 “다성적 분리”(dissociation polyphonique)가 생긴다 (Kleiber, 1999, 61). Michaux(1997, 397)의 설명에 의하면 이 메타언어적 해독에서는 화자가 속담에 결부된 원리를 ‘여기’ 그리고 ‘지금’ (국지적 메타언어적 해독의 경우) 또는 일반적으로 (일반적 메타언어적 해독의 경우)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할 지라도 화자 자신이 속담의 저자가 아님을 분명하게 나타낸다. 따라서 속담 자체는 화자의 개인적 판단이 아니라 여전히 집단적 판단을 나타내는 것이다.

4.2. 속담내용 해독, 탈속담화

이 해독층위에서는 화자가 특수한 상황 또는 일반적 상황에 대한 속담의 적용가능성에 대한 판단(즉 메타언어적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속담의 내용에 대한 개인적 판단을 표현한다.

Je trouve que l'argent ne fait pas le bonheur. (Kleiber 1999, 67)

이 예문의 경우 물론 일반적 메타언어적 해독도 가능하지만 속담의 내용에 관한 해독도 또한 가능하다. 즉 돈이 있다는 사실과 행복하다는 사실 사이의 관계에 대해 화자가 자신의 개인적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 Michaux(1997, 397)에 의하면 “화자는 오로지 속담의 구성성분에만 관심을 가지고 ... 자신이 SN에 술어를 부여하는 책임을 진다.”⁸⁾ 이처럼 내용에 관한 해독에서는 화자가 속담의 저자와 동일시되고 화자와 구별되는 발화자가 존재할 수 있으리라는 가능성은 배제된다. 의견의 화자와 발화자가 동일해지는 것이다. 이런 구문은 화자의 발화적 책임을 내포하는 구문으로서 주관적인 해독의 대상이 된다. 즉 속담발화의 개념적 내용이 개인적 의견으로 제시된다.

Michaux가 제시한 다음 두 예는 메타언어적 해독과 내용해독 사이의 차이를 형태적으로 잘 보여준다.

(1) *Je crains fort que dans l'absolu les cordonniers sont les plus mal chaussés.*

8) SN은 syntagme nominal(‘명사구’)의 약어임.

(2) Je crains fort que les grands diseurs ne soient pas les grands faiseurs. (Michaux 1997, 396)

(1)에서 속담-보어절에 직설법이 사용되었는데 이는 주절 동사인 *craindre*가 요구하는 서법(접속법)이 아니다. 화자는 이러한 통사적 이탈을 선택함으로써 속담의 형태적 고정성을 유지시키고, 그렇게 함으로써 대화자에게 메타언어적 해독을 강요하는 것이다. 따라서 (1)은 (*dans l'absolu*에 의해 명시되는) 속담의 일반적 적용에 관한 일반적 메타언어적 해독의 대상이 된다. 반면에 (2)는 속담-보어절 속에 접속법이 사용됨으로써 화자가 주절 동사의 통사적 제약을 존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명칭적 위상을 지닌 속담의 주요 특성인 형태의 고정성을 약화시킴으로써 화자는 속담의 내용을 자신이 책임질 수 있게 된다. 결국 (1)과 (2)의 속담-보어절의 구조적 차이가 속담 해독의 지표 역할을 한다.

이처럼 속담이 화자의 주관성을 연루시키는 동사와 결합해서 속담 내용에 대한 주관적인 해독을 야기하는 경우 속담은 집단적 판단, “민중의 지혜”를 나타낸다는 정의에서 벗어나는 듯하다. 그래서 Michaux(1997, 398)는 속담이 화자에 의한 개인적 판단과 동일시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대중성, 전통성과 같은 속담의 정의적 특성의 결과라고 볼 수 있는 속담 화자와 속담 발화자의 다성적 분리라든가 속담발화자의 집단적 성격과 상충된다. 이런 문제를 Kleiber는 “탈속담화”(déproverbialisation)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해결한다. 이런 경우는 사실 의견동사와 속담의 결합이 아니라는 것이다 Kleiber(1999, 64). 즉 여기서 문제되고 있는 것은 ‘Je trouve que + proverbe’가 아니라 ‘Je trouve que + proposition’이라는 것이다. 형태적으로 볼 때는 속담과 의견동사와 결합된 발화 사이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Michaux가 속담이 개인적 판단을 표현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Kleiber에 의하면, 개인적 의견동사의 보어로 삽입테스트를 적용할 때 물론 속담을 취하기는 하지만 이러한 삽입이 (속담의 형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속담의 위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즉 문장적 명칭으로서의 속담은 탈속담화 작용에 의해 명칭적인 측면을 잃고 문장의 측면만을 지니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 문장은 더 이상 “그 의미가 미리 주어진, 즉 표현된 술어작용이 선형적으로 습득되어 이미 구성된, 고정된 문장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SN + SV 결합의 유효성을 제시하는 여타 문장과 같은 문장이 다시 된다”(1999, 66).⁹⁾ 탈속담화된 속담이란 코드화된 단위의 위상을 잃고 다

9) SV는 syntagme verbal(‘동사구’)의 약어임.

시 단순한 문장 즉 총칭문이 되는 속담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위에 예시한 “L'argent ne fait pas le bonheur”라는 속담은 비메타언어적 해독이 적용되는 ‘Je trouve que ...’ 형의 구조 속에 삽입되면 탈속담화된다. 이처럼 Kleiber는 탈속담화라는 간접적 수단을 통해 “Je trouve que l'argent ne fait pas le bonheur”와 같은 표현법을 설명함으로써, 속담이 개인적 판단의 표현이 아니라는 명제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4.3. 속담의 해독층위와 속담의 총칭문적 유형의 관계

위에서 보았듯이, 의견동사(trouver)와 속담의 결합 형태에 나타나는 보어절-속담에 대해 Anscombe는 국지적 메타언어적 해독 가능성만을 제시한 데에 비해, Michaux는 상이한 두 가지 유형의 해독, 즉 메타언어적 해독(국지적 해독과 일반적 해독)과 보어절-속담의 내용에 관한 해독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후자는 나아가 이러한 해독층위의 구분을 통해 속담도 두 그룹으로 나눌 것을 주장한다(1997, 398). 속담내용에 관한 해독이 가능한 속담그룹과 메타언어적 해독만이 가능한 속담그룹이 그것이다. 첫 번째 그룹에 속하는 속담들은 Anscombe의 국지적 유형화 총칭문(Kleiber의 ‘ \exists LOC’ 형 총칭문)의 성질을 띠는 것들이고, 두 번째 그룹에 속하는 것들은 선형적 유형화 총칭문(Kleiber의 ‘ \forall LOC’ 형 총칭문)의 성질을 띠는 것들이라고 한다.¹⁰⁾ 국지적 유형화 총칭문은 그 성질상 개인적 판단으로 통할 수 있으므로 이런 총칭문의 위상을 지닌 속담은 탈속담화되어 그 내용이 화자 개인의 판단의 대상이 된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반면에 선형적 유형화 총칭문의 위상을 지닌 속담은 그 선형적인 성격으로 인해 모든 화자들에게 진리치가 인정되므로 그 내용 자체는 개인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고, 특수한 상황이나 일반적 상황에 대한 속담의 적용 가능성만 개인적 판단의 대상이 된다. 이 후자의 경우 속담은 속담의 온전한 의미를 지니면서 메타언어적으로 해독된다고 볼 수 있다.

10) Anscombe(1995, 75-76)는 비분석적 총칭문을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특정 속성을 특정 부류의 유형적 속성으로 제시하는 “선형적 유형화 총칭문”(phrases typifiantes a priori)과 특정 속성을 ‘지금’ 그리고 ‘여기서’ 특정 부류의 유형적 속성으로 제시하는 (즉 발화행위를 떠나서는 유형적 속성으로 인정되지 않는 속성을 제시하는) “국지적 유형화 총칭문”(phrases typifiantes locales)이 그것이다. Kleiber의 용어로 전자는 어느 화자에게나 참인 \forall LOC형 총칭문에 해당하고, 후자는 적어도 한 화자에게는 참인 \exists LOC형 총칭문에 해당한다.

Michaux는 의견동사와 결합되어 속담내용에 대한 해독의 대상이 되는 속담들을 근거로 삼아, 속담이 개인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속담은 그 명칭적 위상으로 인해 집단적 성격을 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속담이 그 내용에 대한 해독의 대상이 되어 화자 개인의 판단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미 속담으로서의 위상은 상실한 단순한 총칭문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속담은 문장적 명칭이라는 기호학적 특이성으로 인해 ‘총칭문’과 ‘명칭’의 이중적 위상을 지니기 때문에, 내용해독의 대상이 된 속담 즉 주관적 해독의 대상이 된 속담은 온전한 의미의 속담이라고 볼 수 없다. Kleiber가 탈속담화라는 개념을 사용한 까닭도 여기에 있다.

Michaux가 언급한 (속담내용의 해독 대상이 되는) 국지적 유형화 총칭문은 이것이 단순한 총칭문에 불과한 경우에만 ‘ \exists LOC’형 총칭문으로서 주관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속담은 총칭적 상황을 외시하는 단순한 총칭문이 아니라 그 명칭적 위상으로 인해 총칭적 상황을 명명하며, 이러한 명명은 총칭적 상황의 진리를 전제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속담이 외시하는 \exists LOC형 총칭적 상황은 ‘ \forall LOC’형 진리가 되며, 이 때문에 온전한 의미의 속담으로서는 ‘Je trouve que’에 의한 화자 개인의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속담이 명칭적 위상을 상실하고 단지 총칭문의 위상만 지니는 경우에 한해서 (즉 탈속담화를 통해서만) 개인적 판단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속담이 개인적 판단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Michaux가 제시한 두 가지 층위의 해독의 구분은 개인적 판단을 나타내는 속담과 그렇지 않은 속담의 구분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탈속담화될 수 있는 속담과 그렇지 않은 속담의 구분을 가능케 할 것이다.

그렇다면 국지적 유형화 총칭문의 성격을 지닌 속담은 어느 것이나 탈속담화될 수 있는가?

Kleiber(1999, 67)는 속담형태의 고정성과 삽입동사의 제약조건이 속담을 개인의 견동사 구문 속에 삽입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한다. 즉 속담의 명칭적 위상을 드러내는 고정된 형태가 통사적 구문이나 은유적 측면에 있어서 총칭문의 형태와 너무 거리가 멀 때는 ‘Je trouve que + complétive’ 구조 속에 속담을 삽입시키기 힘들다는 것이다. 다음 예문들을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다.

(1) ?Je trouve que à petite cloche grand son. (Kleiber 1999, 67)

(2) ?Je trouve que chien qui aboie ne mord pas. (Michaux, 1997, 398)

(3) *Je trouve que l'argent ne fait pas le bonheur.* (Kleiber, 같은 곳)

동일한 의견동사와 결합했는데도 (1)의 경우와는 달리 (3)의 경우 해당 속담은 어렵지 않게 보어절로 삽입되어 탈속담화되어 단순한 총칭문으로서 화자 개인의 판단에 편입된다. 특히 Michaux(1997, 397)는 속담의 은유적 특징이 속담의 해독유형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주목한다. 그에 의하면 은유는 속담의 형태적 고정성을 명확히 함으로써 “민중의 지혜”에서 빌어왔음을 드러내므로, (2)에서 보어절은 탈속담화되어 ‘주부(SN) + 술부(SV)’로 해석되지 않고 속담의 온전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즉 (2)에서 내용 해독은 용인되기 어렵지만 메타언어적 해독은 가능하다.

그런데 (3)과 같이 총칭문의 형태와 일치하는 경우일지라도 다음 속담의 삽입은 불가능하다.

**Je trouve que les cordonniers sont les plus mal chaussés.* (Michaux, 1999a, 342)

즉 동일한 의견동사의 경우에도 형태나 은유로 인한 장애 여부에 관계없이 속담의 종류에 따라 결합가능성에 차이가 생기는 것이다.

나아가 동일 속담이라도 어떤 의견동사와 결합되느냐에 따라 탈속담화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다.

J'estime que prudence est mère de sûreté.

**Je trouve que prudence est mère de sûreté.* (Kleiber 1999, 63)

이런 현상은 각 의견동사가 자신의 보어절 유형을 선택하기 때문에 단순한 총칭문의 수준으로 강등된 속담도 삽입동사가 제시하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데 기인한다. Kleiber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속담이 아닌 총칭문의 형태도 마찬가지로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즉 “*Dans la vie, il faut faire attention*”이라는 단순한 총칭문은 “*J'estime que*”와는 결합이 용인되나 “*Je trouve que*”와는 결합이 힘들다는 것이다.

J'estime que dans la vie il faut faire attention.

?Je trouve que dans la vie il faut faire attention.

그렇다면 이 두 의견동사의 차이는 무엇인가? Ducrot(1975)의 분석이 이와 관련해 유의한 길잡이가 될 것이다. 그는 사용조건에 입각해 8가지 의견동사를 분류한 바 있는데(84), 그가 제시한 5가지 기준에 의하면 'Je trouve que'와 'J'estime que'는 다음과 같은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인다.¹¹⁾

Trouver +P +M +O -C -R
 Estimer +P +M -O +C +R

즉 그 공통점은 둘 다 경험에 바탕을 둔 개인적 판단을 내포하며 사물 자체에 대한 경험 즉 내재적 술어작용(prédication intrinsèque)을 내포한다는 점이고, 차이점은 1) 'Je trouve que'가 최초의 술어작용(prédication originelle)을 내포하는 반면 'J'estime que'는 이 기준의 충족을 요구하지 않으며, 2) 후자의 경우 화자가 보여절

11) Ducrot는 의견동사들이 사용될 수 있는 상황 유형에 근거해 몇몇 의견동사의 분류를 시도한 바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이 +/- 가치를 부여하는 5가지 기준에 의해 직설법 현재 1인칭으로 사용된 8개 의견동사를 분류했다.

1. Critère « P »: 동사가 경험에 근거한 개인적 판단을 내포
2. Critère « M »: 동사가 사물 자체에 대한 경험을 내포
3. Critère « O »: 동사가 최초의 술어작용 내포
4. Critère « C »: 화자가 보여절에 표현된 의견을 확신하는 것으로 제시됨
5. Critère « R »: 화자가 자신의 의견을 숙고의 산물로서 제시함

참고로 이 다섯 기준에 의해 8개 의견동사가 서로 어떻게 구별되는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Considérer	+P	+M	+O	+C	+R
Trouver	+P	+M	+O	-C	-R
Estimer	+P	+M	-O	+C	+R
Juger	+P	-M	-O	+C	+R
Avoir l'impression	+P	-M	-O	-C	-R
Etre sûr	-P	-M	-O	+C	-R
Penser	-P	-M	-O	-C	+R
Croire	-P	-M	-O	-C	-R

여기서 -는 단순히 동사가 이 기준의 충족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기준이 입증되는 몇몇 상황과 양립될 수도 있다. +는 동사가 이 기준의 충족을 요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에 표현된 의견을 확신하는 것처럼 제시되는 데 반해 전자는 이런 기준의 충족을 요구하지 않고, 3) 후자의 경우 화자가 자신의 의견을 숙고의 산물로 제시하는 데 비해 전자는 이런 기준의 충족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단순한 총칭문이건 탈속담화된 속담이건 의견동사가 요구하는 기준이 입증되는 상황을 나타내는 경우에만 보여질로서 해당 동사와 직접 결합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Il est point de sot métier”와 같은 속담은 이 자체가 사전판단의 가능성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최초의 술어작용을 요구하는 “Je trouve que”와 결합이 가능하고 따라서 다음과 같이 탈속담화되는 것이다.

Je trouve qu'il n'est point de sot métier. (Michaux 1997, 397)

이처럼 동사가 요구하는 기준을 내재적으로 지니고 있는 속담은 이 동사와의 결합이 보다 용이하고 직접적이다. 즉 비메타언어적으로 해독되는 ‘Je trouve que ...’ 형의 구조 속에 삽입될 수 있는 단순한 총칭문 수준의 속담은 형태적인 면에서 아무런 삽입의 어려움이 없지 않더라도 삽입동사의 사용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만 삽입이 가능한 것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메타언어적으로 해독되며, 이런 경우에는 최초의 술어작용이 대상으로 하는 것은 속담의 내용이 아니라 화자의 판단인 것이다. 즉 속담이 어떤 특수한 상황에, 또는 일반적으로 모든 상황에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화자의 판단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5. 맺음말

이상의 연구를 통해 우리는 속담의 화자와 저자의 다성적 분리에 있어서 속담화자는 속담의 ‘내용’ 뿐만 아니라 ‘형태’의 책임자도 아니며, 개별적인 속담화자에 의해 발화됨에도 불구하고 속담 자체는 집단적 판단을 나타냄을 보았다. 이는 속담이 문장적 명칭이라는 지시미론적 정의의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의견동사와 속담이 결합된 구문의 해독은 집단적 판단으로서의 속담이 보여질 형태로 삽입되어 특수한 상황이나 일반적인 상황에 적용되는 현상에 대한 ‘응용적’ 해독일 수밖에 없으며, 이런 경우에도 속담발화행위의 다성성에는 변함이 없다. 그리고 속담내용에 대한 개인적 판단을 나타내는 것으로 간주되는, 그래서 다성적 분리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주관적 해독에서는 보여질로 삽입된 속담이 단

지 형태상으로 속담과 동일할 뿐, 실은 속담의 명칭적 위상을 상실한 일반 총칭문의 성격을 띤다. 즉 탈속담화가 일어난 것이다. 그런데 속담이 의견동사와 결합되어 탈속담화하려면 1) 그 총칭문적 성격이 국지적 유형화 총칭문이면서 2) 통사적이거나 은유적인 면으로 인해 보어절로서의 삽입이 힘들지 않고 3) 의견동사의 사용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런 경우에만 주관적인 해독이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의견동사와의 양립가능성을 근거로 하여 속담이 집단적 판단이 아니라 개인적 판단을 나타낼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속담은 그 다성적 성격을 통해 “민중의 지혜”를 대변하며, 다성적 분리 내지 탈속담화라는 개념을 통해 속담의 특성이 더욱 부각되는 것이다.

< 부록 >

인용된 속담 번역¹²⁾

- A petite cloche grand son.
빈 수레가 더 요란하다.
- A quelque chose malheur est bon.
전화위복.
- Ce qu'on apprend au berceau dure jusqu'au tombeau.
세 살 적 버릇 여든까지 간다.
- Chien qui aboie ne mord pas.
겁많은 개가 짖는다. (말많은 사람은 실속이 없다.)
- Il n'est pire eau que l'eau qui dort.
흐르지 않는 물보다 고약한 것은 없다/고인 물이 썩는다. (겉보기에 순해 보이는 사람이 더 무서운 법이다.)
- Il n'est point de sot métier.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
- L'argent ne fait pas le bonheur.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다.

12) 프랑스어 속담의 표현방식에 대한 정보 제공이 유익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축어역을 제시했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등가에 의한 번역임. 번역만으로는 의미해석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괄호 속에 그 의미를 풀이했음.

- Les cordonniers sont les plus mal chaussés.
구두장이가 신발을 제일 못 신는 법이다/대장장이 집에 식칼이 없다. (가지고 있을 법한 사람이 정작 가지고 있지 않다.)
- Les grands diseurs ne sont pas les grands faiseurs.
큰소리 치는 사람 큰일하지 못한다/빈 수레가 더 요란하다.
- Les mouches se reposent toujours sur les chevaux maigres.
파리는 항상 여윈 말 위에서 쉰다. (운명은 우선 가장 헐벗은 자들을 덮친다.)
- Loin des yeux, loin du coeur.
멀리 떨어져 있으면 마음도 멀어진다/빈 틈새에 바람난다.
- Pas de nouvelles, bonnes nouvelles.
무소식이 희소식.
- Petite pluie abat grand vent.
적은 비에 큰 바람이 멎는다. (하찮은 것이 큰 노기를 가라앉히기도 한다.)
- Pierre qui roule n'amasse pas mousse.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우물을 파도 한 우물을 파라. (직업을 자꾸 바꾸면 성공하지 못한다.)
- Prudence est mère de sûreté.
신중함이 안전의 어머니다/아는 길도 물어서 가라.
- Qui ne risque rien, n'a rien.
호랑이 새끼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가야 한다.
- Qui trop embrasse mal étreint.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한 마리도 못 잡는다.
- Qui va à la chasse perd sa place.
사냥간 사이에 제 자리를 잃는다/소라가 똥 누러 가니 거드래기 기어들었다. (지켜야 할 자리를 비우면 빼앗기고 만다.)
- Vouloir, c'est pouvoir.
소망이 곧 능력이다/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 인용문헌

황경자. 「명칭과 문장으로서의 속담의 이중적 위상에 관한 연구」. 『불어불문학연

- 구, 제44집. 한국불어분문학회. (2000): 775-805.
- Anscombe, J. C. "Proverbe et formes proverbiales: valeur évidentielle et argumentative," *Langue française*, 102 (1994): 95-107.
- _____ (dir.) *Théorie des topoï*. Paris: Ed. Kimé. 1995.
- Berrendonner, A. *Eléments de pragmatique linguistique*. Paris: Minuit. 1981.
- Charaudeau, P. *Grammaire du sens et de l'expression*. Paris: Hachette Education. 1992.
- Ducrot, O. "Je trouve que." *Semantikos*, I, n° 1 (1975): 62-88.
- Grésillon, A. et Maingueneau, D. "Polyphonie, proverbe et détournement ou Un proverbe peut en cacher un autre." *Langages*, 73 (1984): 112-125.
- Gross, G. *Les expressions figées en français*. Paris: Ophrys. 1966.
- Kleiber, G. *Nominales*. Paris: A. Colin. 1994.
- _____ "Les proverbes: des dénominations d'un type "très très spécial." *Langue française*, 123 (1999): 52-69.
- Maingueneau, D. *L'énonciation en linguistique française*. Paris: Hachette Supérieur. 1994.
- _____ *Analyser les textes de communication*. Paris: Nathan Université. 2000.
- Michaux, C. "Parémies, collocations verbales et actes de parole ou comment les verbes aident à la classification et à la maîtrise des proverbes." (Projet ARC: Typologie textuelle et théorie de la signification.) *Rapport de recherches*, n° 3. Bruxelles: Université Libre de Bruxelles. 1995.
- _____ "Proverbe et jugement individuel: deux incompatibles?" (Projet ARC: Typologie textuelle et théorie de la signification.) *Rapport de recherches*, n° 4, Bruxelles: Université Libre de Bruxelles. 1996.
- _____ "Le proverbe dans la théorie de la polyphonie." *Paremia*, n° 6, (1997): 393-398.
- _____ "Le proverbe: nom ou phrase?" *Paremia*, n° 8 (1999a): 339-344.
- _____ "Proverbes et structures stéréotypées." *Langue française*, 123 (1999b): 85-105.
- Montreynaud, F., Perron, A. et F. Suzzoni. *Dictionnaire de proverbes et dictons*. Paris: Le Robert. 1993.
- Norricks, N. *How proverbs mean. Semantic Studies in English Proverbs*. Berlin: Mouton. 1985.
- Sperber, D. et D. Wilson. *La pertinence*. Paris: Minuit. 1989.

[Résumé]

**Le proverbe français dans l'approche
polyphonique et les lectures
de la combinaison 'verbe d'opinion + proverbe'**

Kyung-Ja Whang
(Université des Femmes Ewha)

Nous nous proposons dans cet article de définir le proverbe dans le cadre polyphonique et d'examiner les différents types de lectures de la complétive dans la combinaison d'un verbe d'opinion personnelle avec un proverbe.

Celui qui énonce un proverbe n'est pas l'auteur de ce proverbe. En termes de polyphonie, s'il est bien le locuteur du proverbe, il n'est pas l'énonciateur du principe qui y est exprimé. Si nous disons que le locuteur d'un proverbe n'est pas l'énonciateur de ce proverbe, ceci veut dire que le locuteur du proverbe n'est pas seulement l'auteur du contenu du proverbe qu'il énonce, mais il n'est pas non plus l'auteur de la forme du proverbe. Le fait que le proverbe perd son caractère proverbial lorsqu'on le paraphrase prouve que le locuteur n'est pas le responsable de la forme du proverbe.

Mais un particulier ne peut être tenu pour responsable d'un proverbe. Comme l'indiquent les expressions la "sagesse des nations" et la "vox populi", le proverbe est le fait d'un énonciateur collectif. La polyphonie inhérente au proverbe met aux prises un locuteur particulier du proverbe et un énonciateur collectif. Ce caractère collectif du proverbe comme "vox populi" vient de son caractère de dénomination phrastique.

Si le proverbe est bien un jugement collectif, non pas une opinion personnelle, comment interpréter la combinaison de ce proverbe avec un verbe d'opinion, par exemple *Je trouve que?* Cette combinaison donne lieu à des lectures de niveaux distincts : deux types de lecture métalinguistique et une lecture sur le contenu du proverbe. La première, de nature applicative, peut être locale ou générale, portant sur l'opinion du locuteur quant à l'applicabilité du proverbe à une situation particulière ou générale. Dans ces deux types de lecture applicative, il y a toujours une dissociation polyphonique entre locuteur et énonciateur. La seconde, portant sur le contenu du proverbe, est le résultat de l'opération de déproverbialisation qui fait perdre au

proverbe son statut dénominatif pour ne conserver que son statut de phrase générique. Le proverbe déproverbialisé apparaît comme la suite SN + SV. Dans cette lecture, le locuteur du proverbe reprend à son compte l'attribution d'un prédicat à un syntagme nominal. Il y a une identité entre locuteur et énonciateur.

Mais on ne peut pas déproverbialiser n'importe quel proverbe. Parmi les proverbes, à rapprocher des phrases génériques typifiantes locales, ceux dont la forme ne rend pas difficile l'insertion du proverbe dans cette combinaison soit par la construction syntaxique, soit par un côté métaphorique et qui possèdent intrinsèquement les traits exigés par chaque verbe d'opinion, acceptent seuls d'être déproverbialisés par un verbe d'opinion.

On peut ainsi maintenir grâce à la notion de déproverbialisation qu'un proverbe exprime un jugement collectif, un jugement individuel déproverbialisé.

[Abstract]

A Polyphonic Approach to French Proverbs and the Readings of the Combination 'Opinion Verb + Proverb'

Kyung-Ja Whang
(Ewha Womans University)

This article aims to define the nature of proverbs from a polyphonic point of view and examine different readings of the complement involved in the combination of a proverb with a verb of personal opinion.

An utterer of a proverb is not himself the author of the proverb. He may well be a 'speaker' of a proverb, but from a polyphonic view point he is not an 'enunciator' of the principle that underlies it. When we say that a speaker of a proverb is not its enunciator, we do not simply mean that he is not the author of the 'content' of the proverb he speaks: we mean that he is not the author of its 'form' either. The fact that a proverb loses its proverbial character when one paraphrases it proves that its form is not at the speaker's disposal.

But a single factor cannot be held responsible for what a proverb is. As an

indicator of the 'wisdom of the nation,' or vox populi, a proverb is the achievement of the 'collective enunciator.' The polyphony inherent in the proverb pits a particular speaker against a collective enunciator. This collective character of the proverb as a vox populi comes from its character as a phrasal denomination.

Given that a proverb reflects a collective judgment and not a personal opinion, how do we interpret the combination of a proverb with a verb of personal opinion such as I think that ...? Such a combination gives rise to readings at distinct levels: two types of metalinguistic reading and a reading based on the content of the proverb. The first level of reading, being applicative in nature, can be local or general, depending on the speaker's opinion as to the applicability of the proverb to a situation, particular or general. These applicative readings always involve polyphonic dissociation between the speaker and the enunciator. The second level of reading, which depends on the content of the proverb, is the result of the operation of deproverbialization, which makes the proverb lose its denominative status to preserve only its status as a generic phrase. The proverb, thus deproverbialized, looks like the series 'NP + VP.' For this reading, the speaker of the proverb takes into consideration the possibility of attributing a predicate to a nominal syntagm. Here occurs an identity between the speaker and the enunciator.

It is not the case, however, that one can deproverbialize just any proverbs. In approaching to a locally typifying generic phrase, a proverb admits of being deproverbialized by an opinion verb only when its form does not render it difficult, either syntactically or metaphorically, to incorporate that proverb into the relevant combination, and when the proverb intrinsically possesses the traits that meet the conditions for the use of the opinion verb at hand.

One can also maintain, based on the notion of deproverbialization, that a proverb expresses a collective judgment, a deproverbialized individual judgment.